

“이 설정이 배우 아이디어라고?”

최민식·전도연·조승우 등

배우 연기력으로 시너지

설정 제안 캐릭터 재탄생

캐릭터를 탄생시키는 건 작가지만, 캐릭터를 완성하는 건 배우의 몫이다.

천재적인 음악가 출신 변호사(조승우), 잔잔한 카리스마를 폭발시키는 카지노 왕(최민식), 사랑스러운 반장가게 사장(전도연) 등 최근 각기 다른 드라마에서 인기를 끈 세 캐릭터 역시 배우들이 직접 제안한 설정으로 완성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작가의 시나리오에 배우들의 해석과 아이디어를 더해 드라마와 배우의 몸에 딱 맞는 캐릭터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27일 방송가에 따르면 현재 방영 중인 JTBC 드라마 ‘신성한 이혼’의 주인공 신성한도 조승우를 만나 원작과 전혀 다른 캐릭터로 재탄생했다.

원작인 동명의 웹툰에서 신성한은 늘 경감한 수트 차림에 미간은 찌푸리고, 농담 한마디도 던지지 못할 것 같은 냉철한 이미지를 풍긴다. 반면 조승우가 연기한 신성한은 훨씬 자유분방하고 괴짜스럽다.

조승우는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설정은 제가 직접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다”며 “신성한이 의뢰인의 사건을 들어다볼 때 전직 피아니스트답게 곡을 연주하듯이, 악보를 해석하듯이 바라보는 것처럼 표현되



왼쪽부터 조승우·최민식·전도연

/JTBC·디즈니+·tvN 제공

길 바랐다”고 말했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의 주인공 차무식도 배우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캐릭터다.

최민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카지노’는 연출자와 배우들이 시범공부 하듯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어서 애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차무식은 자기 나름대로 본인이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래할 때 감정을 최대한 절제할 것이라는 설정을 입혀 봤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일타스캔들’의 주인공 남행선도 전도연의 해석을 거쳐 처음 시놉시스와는 다르게 표현됐다.

전도연은 “남행선은 원래 훨씬 역적스러운 캐릭터였는데 저로 인해 희석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훨씬 텐션이 높게 표현해주기를 바라셨는데 그게 부담스러웠고,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첫 대본 리딩 때 (작가님께) 못 하겠다고, 바뀌셨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떠올렸다.

한 방송 관계자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작가지만, 캐릭터를 완성하는 건 결국 배우”라며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내공 있는 캐릭터 해석과 연기력으로 시너지를 낸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XT “다음 목표는 빌보드 ‘핫 100’ 진입”

월드투어 서울 공연 막내려

미공개 ‘블루스프링’ 첫선

“이토록 넓은 공연장에서 우리 함께 하기를 바라왔어요. 이 꿈을 이뤄준 모아(팬덤명)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빈)

그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는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월드투어 ‘엑트 : 스위트 미라지’(ACT : SWEET MIRAGE)의 막을 올리며 “꿈꿔온 공연장에서 무대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서울 공연 둘째날인 이날 무대는 TXT의 세 번째 미니음반의 타이틀곡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로 시작됐다.

TXT는 앙코르 무대로 미공개 곡인 ‘블루스프링’(Blue Spring)을 공개했다.

범규가 이 곡의 작곡에 참여했고, 그를 비롯해 다섯 멤버가 모두 작사에 힘을 보탰다. ‘블루스프링’은 TXT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고대해온 팬과의 벽찬 만남을 노래로 풀어낸 ‘모아’(팬덤명)를 위한 헌정곡이다.

이들간 열린 서울 공연에는 총 2만1,000명의 팬들이 찾았다.

TXT는 이날 공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목표를 묻는 말에 “‘핫 100’(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이름을 올리면 정말 큰 영광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답하며 포부를 드러냈다.

범규는 “신보와 투어를 준비하면서 ‘좋은 음반을 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며 “팬분들의 사랑으로 (부담감을) 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빅히트뮤직 제공

복할 수 있었고, 멤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공연을 마친 TXT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을 돌며 현지 팬을 만난다.

/연합뉴스

“호기심과 설렘도 사랑의 감정”

넷플 ‘더 글로리’ 정성일

냉철한 남편 하도영 연기

“파트1 공개 후 팀 화식 자리에서 김은숙 작가님이 저보고 ‘양조위(량차오웨이) 왔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유재석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웃음)”

깊고 차분한 목소리, 딱 봐도 고급스러운 양복에 말끔하게 넘긴 머리 스타일. 신사적이면서도 상류층 특유의 오만함을 기저에 품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의 하도영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배우 정성일을 염두에 놓고 쓰인 캐릭터라고 한다.

최근 서울 종로구 소계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정성일은 “김은숙 작가님이 드라마 ‘비밀의 숲 2’(2020)에서 저를 보시고 캐스팅 제의를 해주셨다”며 “작품을 위해 1년 넘게 기다렸다”고 밝혔다.

하도영은 돈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부자집 도련님으로 태어나 사람을 부리는 데 익숙한 건설회사 대표. 맞선 자리에서 아내 박연진(임지연 분)을 처음 만났다.

극 중 하도영은 선을 본 여자 중 “웃을 제일 적게 입었는데, 다 디올이어서” 박연진과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한다.

정성일은 “하도영은 박연진의 ‘날티’를 처음부터 알아봤던 것 같다”며 “입고 있는 옷을 봤을 때 재력도 본인과 잘 어울릴 것 같고 단조로운 일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여자라고 판단해서 결혼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렇게 하도영은 박연진과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만, 아내가 숨긴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완벽했던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애지중지하는 외동딸 예술이는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나 유전자상 친딸이 아니고, 학창 시절 약탈하고 가혹한 학교 폭력을 주도한 아내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기 그지없다.



배우 정성일

/넷플릭스 제공

그런데도 하도영은 여러 번 박연진에게 가정을 지킬 기회를 주는데, 정성일은 하도영이 박연진을 쉽게 떠나지 못한 이유가 책임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박연진은 하도영의 선택이었잖아요. 본인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온 아내 박연진의 피해자, 문동은(송혜교 분)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 정성일은 “문동은은 하도영에게 ‘더 알고 싶은 여자’였다”고 해석했다.

“하도영은 자기가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올 답변을 아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문동은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들을 하죠. 호기심이 들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호기심과 설렘, 이런 감정들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웃음)”

정성일은 파트2 공개에 앞서 “등장인물 중 하도영이 제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귀띔한 바 있다.

“하도영은 평생 큰 어려움 없이 평온한 가정 안에서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되죠. 하도영이 내린 최후의 결정이 살인이라는 점에서 제일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연합뉴스

유닛 ‘도재정’ 내달 첫 미니음반 발표

NCT 도영·재현·정우

그룹 NCT의 도영·재현·정우로 이뤄진 유닛 ‘NCT 도재정’이 다음 달 17일 첫 미니음반 ‘퍼퓸’(Perfume)을 내고 데뷔한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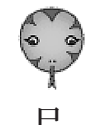
SM은 “NCT 도재정의 세 멤버는 탁월한 보컬과 퍼포먼스 실력을 갖춘 조합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NCT 127 월드투어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유닛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장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 11:55 안영 우리말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불만한 아침 1부 8:05 해 불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금이아 육아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오아시스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매너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좋은 날 10:45 뽀뽀뽀 좋아좋아 11:15 헬로키즈 공학교실 11:30 반짝이는 프리채널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6:10 세계테마기행 7:00 뽀롱뽀롱 뽀로로 7:15 우당탕탕 온한잔단 7:45 뽀롱뽀롱 부부맨 8:00 당돌당 유치원 8:20 출동! 슈퍼월드 9:05 슈퍼두더 잉글리시 9:20 빅 블루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00 바닷가 사람들 2:45 한국의 둘레길 3:35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파피그 5:00 EBS 뉴스 6:00 로보카폴리 7:00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7:30 한국의 둘레길 7:50 국한작업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크프라임 10:45 건축탐구 집 11:55 클라세
12:00 KBS뉴스12 1:00 세상다변사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KBS뉴스 2:10 생로병사의 비밀 3:00 영상앨범 산 3:3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4:00 사사건건 5:00 KBS뉴스5 5:30 동물의 왕국	12:15 개는 훌륭하다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0 KBS 뉴스타임 3:10 두리동심 몽개공형3 3:30 TV 유치원 4:00 세상을 걷다 스페셜 4: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5:50 통합뉴스룸ET	12:00 12 MBC 뉴스 12:25 UHD 특선다큐 1:20 글로벌 동물 뉴스 1:55 2시 뉴스외전 3:55 기분 좋은 날 4:55 5 MBC 뉴스 5:10 일타강사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45 꽃선비 열애사 2:00 뉴스브라 4:00 종ын원 스페셜 5:00 SBS 오뉴스 5:50 TV 동물농장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히든 어스 한밤도 8:30 금이아 육아 9:00 KBS뉴스9 10:00 시사기획 창 10:50 더 라이브 11:30 KBS뉴스라인	6:3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9:50 오아시스 11:00 살맛나는 남자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매너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9:00 PD수첩 10:00 헛바닥 종합격투기 11:30 100분 토론	6:50 생방송 투데이 7:30 SBS 8 뉴스 8:00 세상을 이끈일이 10:00 꽃선비 열애사 11: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3월 28일 (음력 2월 7일)	
 子	48년생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60년생 불필요한 지출로 후회한다. 72년생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84년생 웃는 얼굴에 집 못 뵈는다.	 辰	52년생 뜻밖의 것이 복으로 이어진다. 64년생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라. 76년생 경거망동 마라. 88년생 분수에 맞게 계획하고 실속이 우선이다.	 申	44년생 두루두루 베풀면 순조롭다. 56년생 과욕은 금물이다. 68년생 나만의 재능으로 취미 생활을 하겠다. 80년생 겸손하면 신뢰를 얻는다.
 丑	49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61년생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73년생 최종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85년생 새롭게 시작하라.	 巳	41년생 재물 소식으로 기뻐한다. 53년생 지인들과 소담을 나누며 지내는 평범한 하루다. 65년생 화목한 날이 오니 인내하라. 77년생 취미 생활을 하라.	 酉	45년생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57년생 낭비를 줄이고 차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9년생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81년생 화해의 길이 열린다.
 寅	50년생 만사형통 진행된다. 62년생 배우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74년생 마음 둘 곳 없어 답답하다. 86년생 늦었다 생각 말고 실행하라.	 午	42년생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라. 54년생 경정한 후에 결정하라. 66년생 명예를 중요시하라. 78년생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마라.	 戌	46년생 잔꾀를 부리면 잔꾀에 벗어난다. 58년생 후배에게 경험담으로 도움을 줘라. 70년생 실속 없이 바쁘기만 바쁘다. 82년생 이기적인 하루로 마무리한다.
 卯	51년생 혈압을 조심하라. 63년생 실속이 우선이다. 75년생 많은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만 생각하라. 87년생 고난이 훗날 내 스승이다.	 未	43년생 애감이 적중하는 날이다. 55년생 소망은 순조롭게 달성한다. 67년생 기다리면 좋은 기회와 소원 이룬다. 79년생 이성에게 각별한 날이다.	 亥	47년생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59년생 목돈 생기는 기분 좋은 날이다. 71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83년생 반복된 행동은 습관으로 이어진다.